

따뜻한 만남으로 행복을 나누세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 Letter

01 석림사 보각 스님,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발전기금으로 1천만 원 쾌척

석림사 보각 스님은 7일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1천만 원을 쾌척했다.

보각 스님은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환우들이 더 좋은 시설에서 최신장비로 치료 받는 것이 쾌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 이번에 기부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기부는 스님이 입원치료 중에 다른 환우의 치유를 기원하는 나눔을 실천하여 그 의미가 더욱 컸다.

동국대학교병원은 기부자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환우들의 빠른 쾌유를 위해 병원시설 개선과 장비 투자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02 '칼리오페 어머니 합창단' 신년 음악회로 새해 열어

양일초등학교 학부모들로 구성된 '칼리오페 어머니 합창단'이 6일 동국대학교병원 1층 로비에서 환우를 위한 신년음악회를 열었다.

'칼리오페 어머니 합창단'은 2009년 양일초등학교가 개교한 이후 2011년부터 매년 동국대학교병원을 찾아 감미로운 합창으로 환우를 위로하고 있으며, 올해는 '행복'에 관한 주제로 모든 분의 행복을 기원하는 음악회를 열었다.

양일초등학교 홍향화 교장은 "병원을 지날 때마다 항상 환우의 쾌유를 기원하고 있으며, 올미년 새해는 환우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03 참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중 · 고등학생 자원봉사활동 시행

사회사업실은 5일부터 16일까지 중 · 고등학생의 이타성과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원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 12월 27일 본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학생 중 선착순으로 총 62명을 선발했다. 학생들은 봉사를 시작하기 전 오리엔테이션에서 병원 내 봉사활동 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받고 성실히 봉사활동에 임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이번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 중에는 의료인을 꿈으로 간직한 학생들이 많아 참된 나눔의 의미와 함께 본인의 꿈을 실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본원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 청소년들에게 환자돕기 등의 경험을 통하여 이타성과 참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연 2회 시행하고 있다.



Q&A

Q 응급실은 음주 환자와 조직폭력배 등이 진료 중인 의료인에게 폭언, 폭행과 응급실 기물파손 등의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응급실 내 진료실과 치료실에 CCTV 설치가 가능한가요?

A 응급실 내의 '접수창구, 대기실, 복도' 등은 환자 보호자 등이 비교적 제약 없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개된 장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예방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 응급실 내의 진료실, 치료실 등은 '비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와 제25조에 따라 촬영대상 정보주체(환자와 보호자 등)의 동의를 받아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알 리 미

무료영화상영 제목 : 명량 | 일시 : 1월 15일 (목) 13:00 | 장소 : 5층 대강당

